

제 126 호

제 5부할 주일

1975. 4. 27.

#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감 론 □

## 공자人生

김환철 신부



인간이 태어날때 공자로 태어났으니 공자 인생이 아닌가? 부모님의 결혼 비용이나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 놓고 보약을 자셨다 해서 나를 낳기 위한 비용으로 삼을 수가 있나?

나는 공자 인생이다. 공자 인생이지만 공자치고는 최고의 공자다. 돈을 주고는 살수 없고 전 우주를 주고도 바꿀수 없는 공자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했지만 잠깐 쉬었다 가는 나그네만은 아니다.

또 인생을 가르켜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했다. 그러나 올때 공자로 왔지만 공자로 돌아가는 초로인생만도 아니다. 무엇인가 보다 차원이 높은 흑자(黑字) 인생이 아닐까?

누구나 다 똑같이 분배 받은 여전 속에서 하루의 해가 뜨고 저문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공자로 받은 특권이 다.

이런 여러가지 공자 틀바구니 속에서 왜 적자(赤字)를 보고 산단 말인가? 왜 울어야 하고 왜 세상을 저주하고 사느냐 말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직장, 가정은 우리 행복의 보금자리다.

나는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고 산을 넘었다. 산을 넘었지만 거기에는 파랑새가 없었다. 또 산을 넘었다. 거기에도 내가 잡으려는 파랑새가 없기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 왔다. 집에 와보니 내가 잡으려 하던 파랑새가 바로 우리집 처마 밑에서 재잘거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문전걸식(門前乞食)을 한다 해서 나를 탓 할 것도 아니요, 백악관에서 산다 해서 뽀낼 것도 아니다. 가시밭에 핀 한송이의 백합꽃이 정원에 핀 장미화 보다 덜 아름답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많은 종교인들은 현세의 행복보다 사후의 행복관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자기 생활 주변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후의 천당이나 극락울 기대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여전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 사후의 영생(永生)은 기대할 수 없을걸-

왜냐하면 현세 행복은 내세(來世)의 시발이니까-

전동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 **입당송**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정의를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알렐루야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도행전 6:1-7 성서 P. 276)

성신으로 가득찬 사람 일곱을 뽑다.

□ **창세기** ①야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여배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의인들이 주님 안에서 호뭇이 즐거워 하라. 울바른 이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비파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십현금 맞추어 읊조리어라. ②

□ **제2독서** (베드로 전서 3:4-9 성서 P. 540)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요, 하느님의 재관들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도다.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4:1-12 성서 P. 24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 신자들의 기도

1.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주여, 급진하는 세계의 정세안에서/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평화로운 당신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③주여 우리의 기도를...

2.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주여!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오만과 도취감에 빠지지 말고/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④

3. 불의와 부정앞에서 신음하고/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주여! 그들의 신념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총 주시며/끝까지 항거할 수 있는 굳은 용기를 주소서. ⑤

4. 월남에서 고통받는 성직자, 수도자,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것이 당신의 뜻대로 평화로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소서. ⑥

+ 당신의 인자하심에/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이명의 평화가 이룩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우리주 예수... ⑦아멘

### (3) 성찬의 전례 □ 불린 □ 성찬식

□ **영성체송**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순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여성 푸르실리타



# 『사 명의 식』

김 정 원 신부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같이 풍겨나지만 멸망하는 사람에게  
 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  
 다.」 (고린토 후서 2장 14-16절)

사명이란 말을 서양말로 풀이하면 「밋션」(mission)이  
 란 뜻으로 라틴말의 missio 「보낸다」는 말에서 나왔다.

이 말은 신(神)이 이 세상에 인간을 보낸다는 뜻으로  
 알아 듣는다. 사람을 이 세상에 괜히 아무 쓸데없이 거  
 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할 「일」, 해야되는 「일」  
 을 인간에게 부과시키면서 보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자기가 할 일을 짊어  
 지고 나온다. 이것을 다른말로 말해서 소위 「소명」(성  
 소)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소명이 있는 것  
 이다.

사명과 소명은 같은 말이다. 전자는 인간을 창조한 신  
 (神)의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일」이고 후자는 인간편에  
 서 보는 「신(神)의 일」이다.

무릇 생명은 그 자체가 「움직임」, 「활동」을 뜻할진데  
 움직이지 않고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  
 다. 확실히 생명이란 말 마더 안에는 움직임(動)이 내포  
 되어 있다. 우리가 가만히 생물의 성장과정을 살펴 본다  
 면 확실히 그것은 움직임이 들어있다함을 알 수 있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버를 현미경 속에서 그 성장과정을  
 살펴본다면 현저하게 그 생동이 우리 눈 앞에 전개될 것  
 이다. 이것만 보아도 산다는 것 그 자체는 곧, 움직인다  
 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생명 그러던 동(動)이고 활  
 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활동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신(神)이 인간을 창조할때 다시 말하면 무생물(無)에  
 다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을때 하나의 생명체  
 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 「호흡」이 바로 지운을  
 뜻하고 움직임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 호흡의  
 생명의 「움직임」을 받아 자기 생명을 확충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생명의 확충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생명의 공간적 연장뿐만 아니라 수직적 생명의 약동을  
 뜻하기도 한다. 이 생명의 약동이란 곧 창조(소명)의 표  
 현이요 사명의 투명이다.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은 세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있다  
 첫째는 자연적인 탄생으로써의 우리가 부모로 부터 생  
 명을 받을때를 말하고, 둘째는 이 자연적인 생명의 소유  
 자가 차차 자라남에 따라서 「자기 자각」을 갖게 되는데  
 이때를 제 2의 탄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각을 놓고 무엇인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깨닫고 하게 된 때를 보통 제3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탄생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요 고귀한 것이다. 왜  
 냐하면 위에 말한 생명의 뜻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뜻은 곧 수직적 생명의 약동을 말한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한  
 다는 것에 있다」고 루소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부터 분명히 사  
 명의식을 전제로 한 채 무엇인가 자기가 할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는 흔히 다음  
 의 사실을 들을 수 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를 흔히 부인네들이 술잔이나 먹고 소위 기분풀이를 한다  
 고해서 장구나 두드리고 북이나 치면서 울동에 맞춰 노  
 는 풀이 그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노래 귀절이다  
 이것을 실은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라고 뜯  
 어 고쳐야 할 것이다. 기분풀이란 뜻이 그저 논다는 뜻  
 이 아니고 다음의 일을 위해서 창조한다는 뜻이라고 불  
 진데 정말로 우리의 노랫 귀절은 맞지 않다.

한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밥을 위해서만, 밥을  
 얻기위한 인간의 노력만을 뜻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밥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 4, 4) 격의(適意)적인 해석이 될지는 모르나 “하  
 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일진데 생명  
 이란 인간편에서의 사명의 인식을 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란 생명의 참여를 뜻한다고 보아서 그렇게 해석하  
 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밥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치적 공동생활에서의  
 자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기 생활권의 테두리만을 고  
 수하려고 기를 쓰고 버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흔히  
 한다는 소리가 「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남을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공동체를 전제로한  
 연후에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고 할때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한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일을 해야한다.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뜻  
 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의  
 죄명이다.」고 로베레 장군은 말하고 있다.

인간의 평가는 분명히 사명감에 달려 있다. 얼마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  
 여하가 내려진다. 그것은 일의 평가라기보다, 우리의 소  
 명을 내려주고, 사명을 일러주는 신(神)의 소리가 「그리  
 스도의 향기」처럼 풍겨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판별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사 명. 그리스도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로 알고, 사명  
 감에 충실히 일해 보자.

□ 양 지 쪽 □

□ 황무지를 옥토로 □



# 영원한 청년의 비결

헬더 · 까마라 대주교

비록 나이가 우리를 늙게 해도 언제나 젊어지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란 우리가 대의(大義)를 위해 사는 것이다. 스물이란 꽃다운 나이로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없어도 인생에 패배하여 희망없이 사는 비관자(悲觀者)가 될 수 있다. 그는 나이는 젊으나 실상은 늙은이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청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대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 불의(不義)를 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실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수세기 동안 치욕적인 아프리카의 노예제도를 용인하였다. 우리는 노예철폐 운동에 앞장선 청년들의 정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들이 해방을 쟁취하도록 그들을 도왔고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기구(機構)를 철폐하기 위해 여론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시인, 언론인, 법률가, 사제(司祭) 및 각계층의 남녀들이 단결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릴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19세기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20세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백성들을 지지하여 반식민주의(反植民主義) 운동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식민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무용한 짓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영웅, 시인, 대변인, 순국열사들이 있는 법이다.

헌신과 희생을 요하는 일이면 그 무엇이든 실행할 가치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아직도 노예상태에서 살고 있는—비록 그들이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는 일이다. 이미 정치적인 독립은 쟁취했는지라도 경제적인 독립—이것 없이는 유엔에 가입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을 하지 못한 국가들을 해방하는 일이야말로 20세기의 큰 과제이다. 그러므로 모든이는 모든이를 위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끝까지

아무것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시작하라.  
은총은 위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그대의 명제가 아무리 훼손되어도,  
그대에게 아무리 큰 피로움이 닥쳐도  
끝까지 굴치 않고 참는 것,  
바로 이것이니라.

돔 · 헬더 · 까마라  
Dom Helder Camara

1909년 브라질 사오 · 요세에서 출생  
아버지는 저널리스트  
어머니는 국민학교 여교사

1931년 사제 서품

1952년 대교구 대주교 보좌

1964년 올린다-레시페 대교구 대주교

1968년 「正義·平和 운동」 제창

## 요십이 (92) 김병은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 삼성 전주 쉐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3

❖ 결 혼 ❖

김수연 여사의 장남  
이대우(안드레아)군

장준수 씨 장녀  
소영(헬레나)양

주례 김환철 신부님

시간 ; 1975년 5월 4일 12시

장소 ; 전주 전동천주교회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⑤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⑤0876 김테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김 재덕 주교님, 일본에서 열린 극동 주교회의를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 전주교구 제 1 차 여성 꾸르실료, 53명 새 꾸르실리스타 탄생  
서울에서 오신 지도자 권홍자 회장, 윤금자, 신명자, 장능자, 김정희, 장경숙, 정정순, 황경아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3. 결혼 강좌 안내 : 75. 5. 5-5. 10일까지, 매일 오후 7. 30-9. 30분. 회비 : 1,000원 가톨릭센터에서.  
\* 특전 : 수료증 수여 및 수료자에게는 혼배 차고 면제함.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매주 1. 3째주 월요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공지사항)

(중요)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박종영

지난주 : <성미> 10회 <성금> 3,000원  
성소주일 : <성미> 1회 <성금> 1,000원  
누계 <성미> 10회, <성금> 3,000원  
\*성소 주일 특별 봉헌금 : 4,162원

1. 아치에스 : 오늘 오후 2시
2. 방지거 삼회 : 5. 3. 오후 2. 30분
3. 성심 부녀회 : 5월 2일
4. 주일학교 아동 춘계 소풍 : 5월 4일 오전 9시
5. 태평동 이 상신 씨 전자 올겐 회사금 만원  
누계 : 326,789원, 감사합니다.
6. 김 흥연 장례 협조에 감사 드림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5월은 성모 성월 : 매일 미사후 공동 성월 있음.
2. 교무금 완납 요망.
3. 복자 부녀부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주 성미 2.5회 누계 382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 다음 주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전동 : 신입 884,975원 현금 226,150원  
서학 : 신입 80,850원 현금 42,550원  
노송 : 신입 840,150원 현금 170,200원  
\*누계 124,100원 누계 2,548,710원

1. 사도회 간부 확대회의 : 다음 주 미사후
2. 중·고 학생 교리 : 오늘 주일 부터 정각 9시.
3. 애령회 <회장> 박방지거 <부장> 강분도 <총무> 김재열 수고하시겠습니다.
4. 아침 미사 시간 변경 : 6시

<분당>장제마 : 2만원, 소모니카 : 1만원, 박종주 : 5천원, 박마리아 : 5천원, 김말례 : 5천원, 이육순 : 5천원, 임봉희 : 5천원, 윤길남 : 3천원, 김마리아 : 2천원, 송바올라 : 2천원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승천 야외 미사 : 5월 11일 구이 저수지(버스 대절)
2. 예비자 교리 (일반) 주일 10시미사후, 수요일미사후 <학생> 토요일 5시 미사후, 주일 10시 미사후
3. 중·고 체육대회 : 성당에서
4. 방지거 삼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5. 주일학교 공개 교리 : 4월 27일 11시, 참석 바람.
6. 주일학교 성모의 밤 : 5월 1일 오후 7시 초, 복주, 어린이 생가책 준비
7. 61주년 기념 성미 : 10말 <누계> 34말 (세대수 : 118세대)

1. 사도회 전체 확대 회의 : 공식 미사후
2. 신자, 비신자 특별 교리 : 매주 <토> 저녁 8시
3. 제대꽃, 제대초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접수 바람
4. 분당 야외미사, 야유회 5월 4일, 덕진 연화동 건지산
5. 젊은이 단합 대회 : 27. 9시 출발. <송광 위봉 폭포>
6. 애령회 성미 협조 바랍니다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유 숙자(수산나) 남문열 왕궁 가구사 ② 5677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 정	창 제 안 태 인 음	축 심원 공 소 영 세 꾸 리 아 회 의 임 시 회 합 성 모 회 임 시 회 합 특 별 미 사 및 장 론 사 도 회 월 례 회	3,645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황 동	부 활 축 복 가 정 방 문 마 침 임 원 특 상 회 결 임 시 총 회 환 경 미 화 작 업	37,700원	
				16,320원				32,465원	
제 2 지구	대 문 울 동 월 명 중 합	야 동 동 동 동 열	가 족 체 회 세 미 나 꾸 리 아 청 년 회 총 회 까 리 따 스 정 기 총 회 순 회 교 육	4,605원	제 4 지구	중 노 송 동 덕 진 서 학 동	아 치 에 스 행 사 안 토 니 오 재 속 형 제 회 사 도 회 확 대 회 의 부 녀 회 월 례 회 사 도 회 간 부 확 대 회 의 주 일 학 교 공 개 교 리	3,200원	
				2,130원				46,82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산 산	한 대 골 공 소 낙 성 식 성 모 회 월 례 회 사 도 회 월 례 회	15,660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성 모 회, 매 레 사 회 월 례 회 축 여 성 꾸 르 실 리 스타 탄 생 중 고 등 학 생 회 발 족	21,100원	
				3,870원				12,933원	
				3,000원				16,350원	
				21,145원				16,950원	
				14,550원				64,101원	
				3,375원				4,610원	
				11,450원					
				3,185원					